

THE PULSE

서커스 더 펄스



“화려한 방식으로 중력을 거스르다”

- 시드니 모닝 헤럴드

“Gravity defied in spectacular fashion.”

- Sydney Morning Herald



“입이 떡 벌어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장의 작품”

- 씨어터 트레블

“jaw-dropping, edge of your seat, virtuoso production that must be seen to be believed.”

- Theatre Travels



“구성은 절제되어 있고, 전달력은 놀라우리만큼 뛰어나다.
‘더 펄스’는 기립박수를 보낼만큼 매혹적인 공연이다.”

- Hi Fi Way

“It is disciplined in its construction and mesmerizingly transcendent
in its delivery. The Pulse is an edge of your seat performance
well deserving of the standing ovation it received.”

- Hi Fi Way

주최



AICIC
국립아시아문화진흥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re

주관



A.C.C.F.
국립아시아문화재단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제작



제작지원



THE PULSE

서커스 더 펄스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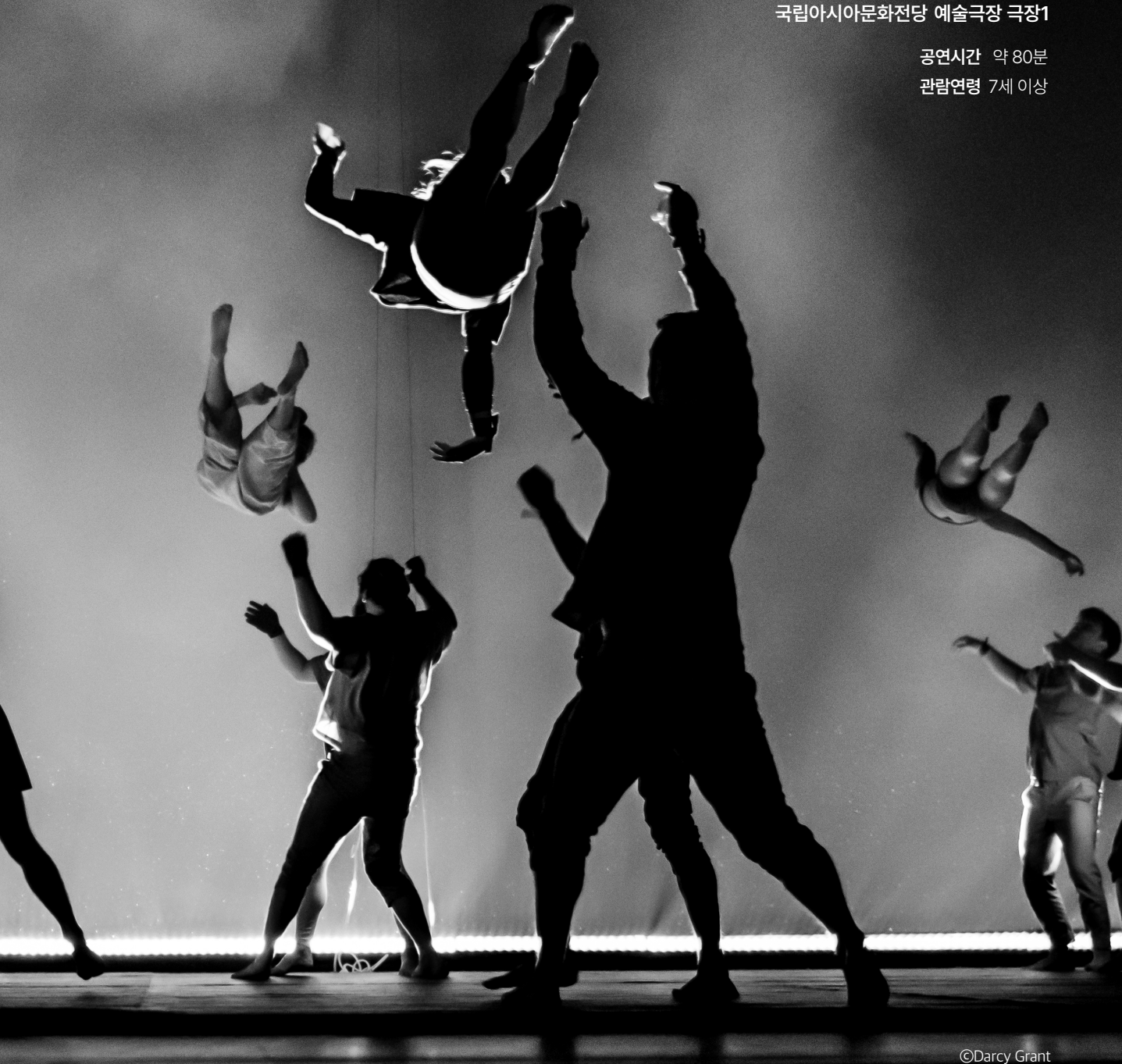
5.2. Fri 19:30

5.3. Sat - 4. Sun 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공연시간 약 80분

관람연령 7세 이상



가장 야심찬 작품으로 돌아온 세계적인 아크로바틱 신체극단 그래비티 앤 아더 미스(Gravity & Other Myths)

관객, 곡예사, 합창단을 한 순간에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킬
거대하고 박진감 넘치는 작품... '더 펄스(The Pulse)'

“18명의 곡예사와 25명의 합창단, 그 빛나는 무리가 결합하고 분열하며
근육과 뼈, 목소리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생명체와 유기체가 된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호주 출신의 이 단체가 핵심 연출진과 25명의 합창단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더 펄스'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 온, 호주가 자랑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품입니다. 연출가 달시 그랜트*, 디자이너 제프 코밤, 작곡가 에크렘 엘리 피닉스** 등 '아웃 오브 카오스'로 헬프만 상을 수상했던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다시 모여 본능적이고, 시적이며 심장을 멎게 하는 이 독특한 회사 특유의 정신을 확장하고 증폭시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협력과 인간애의 서사시적인 흐름이 반복되고, 확장되고,
만개하고, 쇠퇴하며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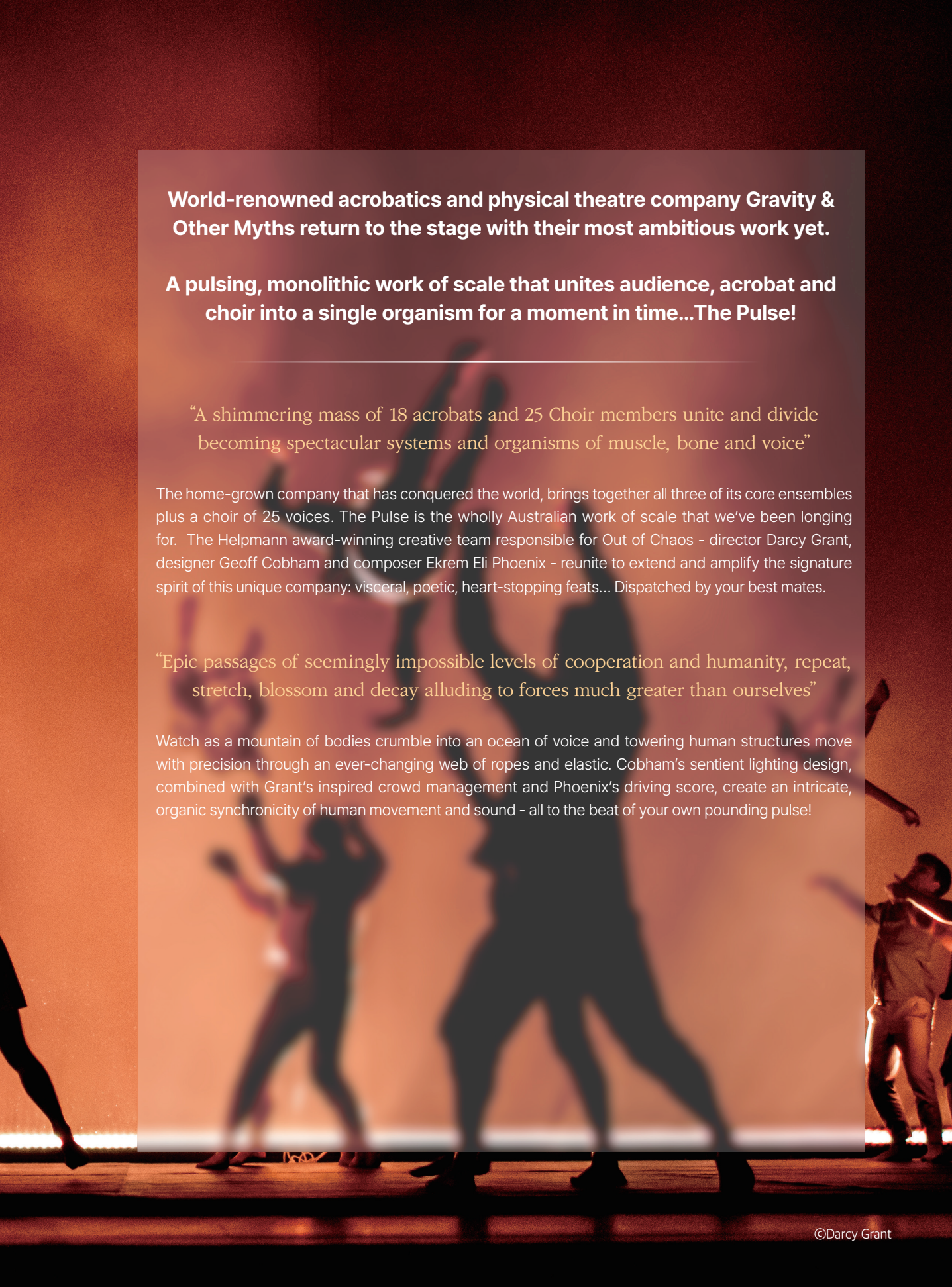
거대한 몸의 산이 목소리의 바다로 무너지고, 우뚝 솟은 인간 구조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줄과 탄력 있는 그물 사이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디자이너 코밤의 감각적인 조명 디자인, 연출가 그랜트의 독창적인 군무 연출, 작곡가 피닉스의 강렬한 음악이 어우러져 인간의 움직임과 소리가 유기적으로 얽혀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일 것입니다!

연출 **달시 그랜트**
Darcy Grant

달시 그랜트는 고전 방식으로 훈련받은 곡예사 출신의 신체극 전문 연출가이자 미술 사진작가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모험적이고 장르를 뛰어넘는 서커스로 유명한 Circa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2017년 Gravity & Other Myths와 함께한 Backbone 공연의 연출로서 최우수 안무상과 최우수 호주 신인 작품상 등 3개의 헬프만 어워드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작곡가 **에크렘 엘리 피닉스**
Ekrem Eli Phoenix

에크렘 엘리 피닉스의 음악은 언론에서 “위험을 감수한 초자연적인”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작품 대부분이 콘서트 위주로 진행되며, 음성, 언어, 기술 및 민족음악학 함께 어우러져 작곡된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에크렘은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무용을 위한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헬프만 어워드 등 다수의 수상이력을 지니고 있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blurred, low-angle photograph of acrobats performing on a stage. The lighting is warm and dramatic, with silhouettes of the performers against a bright, hazy background. The acrobats are in various dynamic poses, some standing on their hands or feet,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and height.

World-renowned acrobatics and physical theatre company Gravity & Other Myths return to the stage with their most ambitious work yet.

A pulsing, monolithic work of scale that unites audience, acrobat and choir into a single organism for a moment in time...The Pulse!

“A shimmering mass of 18 acrobats and 25 Choir members unite and divide becoming spectacular systems and organisms of muscle, bone and voice”

The home-grown company that has conquered the world, brings together all three of its core ensembles plus a choir of 25 voices. The Pulse is the wholly Australian work of scale that we've been longing for. The Helpmann award-winning creative team responsible for Out of Chaos - director Darcy Grant, designer Geoff Cobham and composer Ekrem Eli Phoenix - reunite to extend and amplify the signature spirit of this unique company: visceral, poetic, heart-stopping feats... Dispatched by your best mates.

“Epic passages of seemingly impossible levels of cooperation and humanity, repeat, stretch, blossom and decay alluding to forces much greater than ourselves”

Watch as a mountain of bodies crumble into an ocean of voice and towering human structures move with precision through an ever-changing web of ropes and elastic. Cobham's sentient lighting design, combined with Grant's inspired crowd management and Phoenix's driving score, create an intricate, organic synchronicity of human movement and sound - all to the beat of your own pounding pulse!

Sydney Morning Herald

4 March 2021

By Jill Sykes

★★★★★

“화려한 방식으로 중력을 거스르다”

국경 폐쇄로 지난 1월 시드니 페스티벌에서 개최예정이었던 그래비티 앤 아더 미스(Gravity & Other Myths)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시드니 관객들은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쳤다. ‘더 펄스(The Pulse)’는 GOM의 본거지인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에서 초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으며, 그들의 창작물 중 단연 최고의 작품이다.

스스로를 “새로운 서커스의 경계를 넓히는 아크로바틱 및 신체극단”이라고 소개하는 이 단체의 작품, ‘더 펄스’는 연출가 달시 그랜트의 지휘 아래 30명의 아크로바틱 연기자들과 30명의 합창단 ‘오로라’가 참여한 대규모 공연이다.

공연은 텅 비어있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서서히 시작한다. 평범한 옷차림의 출연자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걷고, 에크렘 엘리 피닉스가 작곡한 가사 없는 매력적인 음악에 맞춰 무대를 가로지른다. 짧은 음악 구절에 맞춘 듯이 쌓아 올리는 동작들을 본 관객들은 시작부터 탄성과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광경의 서막에 불과하다.

한 무용수가 무릎, 어깨, 등, 손 등의 굽혀지는 부분을 이용하여 다른 무용수들 위에 올라서 마치 험준한 바위와 같은 인간 구조물을 만드는 공연의 중심 동작을 한다. 무용수들은 서너 명 높이까지 쌓아 올린 채 물구나무를 서거나, 균형을 잃은 듯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뺀 관객들을 숨죽이게 한다.





©Andy Phillipson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몸의 구조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이 한없이 부드럽고 능숙하다는 점이다. 무용수가 수 미터 아래로 망설이지 않고 몸을 던져 동료들의 팔에 안착하거나, 거대한 구조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떨어지는 동료들을 받아내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낸다.

압도적인 인원수도 인상적이지만, 제프 코밤의 조명 효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텅 빈 무대를 변화무쌍한 패턴의 마법동굴로 탈바꿈시키며, 인간 움직임의 강렬함을 극대화하고 드라마틱하게 연출한다.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안무로 구성되며, 마치 수준 높은 무용 작품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특히, 합창단이 단순한 배경 음악을 넘어 공연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짜릿한 전율까지 일으킨다.

‘더 펄스’는 과거에 ‘백본’과 ‘아웃 오브 카오스’ 작품에서 보여줬던 소박한 유머와 관객과의 소통은 줄었지만,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출연진들의 깊은 신뢰감은 공연 내내 그들이 느낀 즐거움과 성취감과 함께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된다.

* 2021년 초연 당시 리뷰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https://www.smh.com.au/culture/theatre/gravity-defied-in-spectacular-fashion-20210304-p577ss.html>

화려하지만 단순한 서커스일 것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연은 빠르고 현란한 피날레로 돌입해 마치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막을 내렸다.

Theatre Travels

1 March 2021

By Lia Cocks

★★★★★

“입이 떡 벌어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장의 작품”

때때로 인간의 연결, 힘, 끈기, 회복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작품이 나타난다.

2020년 아포칼립스 속에서 그래비티 앤 아더 미스(Gravity and Other Myths, GOM)는 그들의 가장 야심찬 작품인 ‘더 펄스(The Pulse)’를 탄생시켰다. 그들이 고도로 추진해오던 글로벌 투어 시스템은 산산조각이 났고, 새로운 세상에 맞춰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했다. 서로 만지는 것이 금기시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말이다.

나는 리허설이나 작업 진행 과정들을 보긴 했지만, 내가 본 것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작품일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30명의 강인한 곡예사와 30명의 젊은 여성 보컬로 구성된 출연진은 ‘더 펄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자리에 앉으면, 믹 라바지가 디자인한 사운드 스케이프가 심장을 강타하며, 심상치 않은 음향이 당신의 영혼을 울리기 시작한다. 하우스 조명이 여전히 밝게 빛나는 가운데, 커튼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 텅 빈 무대를 드러낸다. 마치 리허설 공간처럼 무대의 날개 공간이나 평면 무대 장치, 배경 커튼도 없다. 그저 마치 텅 빈 열린 캔버스 같다.

이런 무대에서 음향이 우리 몸을 통해 고동치고 있을 때, 노래가 시작된다. 남호주 청소년 합창단인 영 애들레이드 보이스의 시니어 보컬 앙상블인 ‘오로라(Aurora)’는 한 마디로 탁월하다. 작곡가 에크렘 엘리 피닉스의 음악과 크리스티 앤더슨의 탁월한 지휘와 함께 이 젊은 성악가들은 단어와 음성으로 이루어진 경건한 노래를 공연 속에서 보여준다. 그들의 음악은 고요한 침묵의 순간에도 웅장하다.

합창단이 보통 성악 워밍업으로 진행하는 ‘one, one, two, one’을 성가처럼 부르는 동안, 곡예사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이 오르내리고, 회전하고, 비튼다. 발레 무용수의 유연함과 역도 선수의 힘을 겸비한 이 엄청난 신체극 공연자들은 공연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2단, 나중에는 3단으로 마치 토템처럼 가볍게 쌓아 올리다가 어느 순간, 한 용감한 공연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 암전 직전 관객의 탄성과 함께 떨어진다.

이 곡예사들이 끊임없이 우뚝 솟고, 날고, 서로를 잡으며 모험과 도박의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객석에선 열광적인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온다. 공연 중간에 합창단원 중 한 명이 ‘위험한 짓을 할 것 같아요(I feel like they are gonna do something dangerous)’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도 아마 객석 전체가 공감하듯 술렁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림자, 스포트라이트, 형광색으로 장면과 장면 사이를 넘나들게 한 놀라운 조명 연출을 만든 디자이너 제프 코밤에게도 큰 찬사를 보낸다. 무대 천장과 특별석에서 밧줄을 떨어뜨려 복잡한 거미줄을 만들고,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선들로 물들이면서 그 위에 또 다른 수준의 광채를 선사했다.

곡에서 중 한 명이 누워있는 몸을 발판으로 사용해 다른 곡에서들이 '헉!' 하고 비명소리를 내면 그걸 동요 'Mary had a little Lamb'으로 만드는 유쾌한 장면도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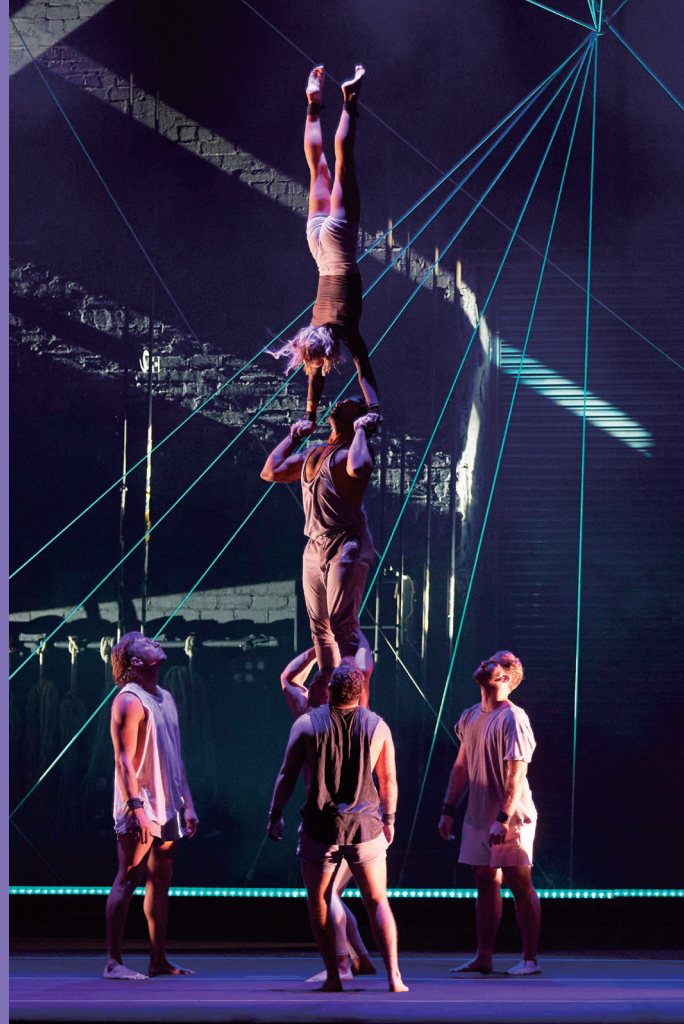
계획된 낙하부터 조직된 혼돈에 이르기까지, GOM은 모든 기술, 트릭, 동작을 어려움 없이 민첩하고 우아하게 선보인다. 이 단체가 신뢰, 충성심 그리고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위기와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이 떡 벌어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직접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장의 작품을 만들어 낸 달시 그랜트 감독과 제작진 전체에 경의를 표한다. 이 단체는 호주의 선도적인 현대 서커스단으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고 본다.

* 2021년 초연 당시 리뷰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https://www.theatretravels.org/post/review-the-pulse-at-her-majesty-s-theatre>

브라보 GOM, 브라보!









Who are we?

단체 소개

GOM은 호주 애들레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커스 단체이다. 인간적인 교감과 탁월한 곡예 기술에 초점을 맞추며 진정성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자 하며, 수준 높고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도 꾸준히 만들고 있다. 2009년, 서커스와 신체극에 대한 열정으로 애들레이드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지난 16년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며, 평단의 찬사를 받은 총 여섯 편의 주요작품을 탄생시켰다.

Our Shows

주요 작품

GOM의 첫 번째 작품인 '심플 스페이스(A Simple Space)'는 다수의 수상 및 34개국 1,000회에 육박하는 공연을 하며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후속작 '백본(Backbone)'은 헬프만 어워드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지난 8년간 다수의 수상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9년 애들레이드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아웃 오브 카오스...(Out of Chaos...)'는 2019 헬프만 어워드 최우수 피지컬 시어터상을 수상하였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더 펄스(The Pulse)'와 '매크로 (MACRO)'는 호주 현대 서커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야심찬 작품으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호주의 예술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GOM만의 독창적인 유쾌함, 진솔함, 신체적 기량은 서커스 업계는 물론 전 세계 관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Our Artistic Approach

예술적 접근 방식

GOM은 개념적 깊이와 탁월한 곡예 기술을 통해 서커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심어주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진솔한 공연을 기반으로 진정성과 유머, 뛰어난 신체적 기량을 통해 인간 본연의 복잡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단체는 앙상블 중심의 창작 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이 작품에 깊이 몰입하고, 핵심 가치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호주 현대 서커스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서커스를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Photo Credit Carnival Cinema



출연진

아크로바틱

Alyssa Moore, Andre Augustus, Annalise Moore, Ashley Youren, Axel Osborne, Chase Levy, Emily Gare, Hamish McCourty, Jacob Randell, Jascha Boyce, Lachlan Binns, Lachlan Harper, Leann Gingras, Lewis Rankin, Martin Schreiber, Maya Tregonning, Nadav Sadlik, Shani Stephens

합창단 Aurora Vocal Ensemble

합창 지휘 & 독창 Christie Anderson

합창

Anastasia Ferguson, Caitlin Merlin, Caitlin Tait, Charlotte Loipersberger, Chloe Dunstan, Clara Chiodi-Reveruzzi, Danae Estrella, Eliza Allan, Ella Moeck, Emma George, Fenella Hall, Georgie Simmons, Isobel Martin, Jane Stephens, Jemma Matthews, Joeryn Wei En Loh, Jordan Hall, Katrina Ogierman, Laura Mohan-Ram, Lucy O'Connor, Monique Lymn, Sophie Schumacher, Stefanie Johnston, Susanne Baltussen



제작진

예술감독 Darcy Grant

조명 & 세트 디자인 Geoff Cobham

작곡 Ekrem Eli Phoenix

지휘 & 독창 Christie Anderson

음향 시스템 디자인 Mik Lavage

창작진 Alyssa Moore, Amanda Lee, Andre Augustus, Annalise Moore, Axl Osborne, Benton Adams-Walker, Chris Carlos, Dylan Phillips, Emily Gare, Ellen Grow, Jackson Manson, Jacob Randell, Jascha Boyce, Joanne Curry, Jordan Hart, Joren Dawson, Joshua Strachan, Kevin Beverley, Lachlan Binns, Lachlan Harper, Lewis Rankin, Lewis West, Lisa Goldsworthy, Lyndon Johnson, Margot Mansfield, Martin Schreiber, Maya Tregonning, Megan Giesbrecht, Rachel Boyd, Shani Stephens, Simon McClure, Tom Adams-Walker

합창 Aurora (Young Adelaide Voices)

기획 프로듀서 Jascha Boyce, Jacob Randell,
Darcy Grant

제작 프로듀서 Torben Brookman

프로덕션 매니저 Belinda Respondeck

기술 감독 Marko Respondeck

사진 제공 Darcy Grant, Andy Phillipson

Presented by Aurora Nova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사장 김선옥

사무국장 박상희

문화사업본부장 조정호

문화예술사업팀장 오채환

기획·운영 박지은 신지원

문화예술사업팀 이준성 이부용 심재민 유선정 임지현
박지은 오호철 조혜진 신지원

아카이브 사진촬영 배현태

무대기술 총괄 임종민

무대감독 임지은

조명감독 임혜영

음향감독 나인권

ACC무대기술

무대 박성용 김평강 김선진 백용민

조명 최영웅 조성호 김선우 조민주

음향 김학수 김왕민 정인범 김주희 김강산
황혜은 김원엽

영상 조영래

하우스 매니저 박지수

공연장 안내원 강다희 강민지 김석희 김수정 박다음
박지형 박채린 심가령 양서현 유귀인
윤고은 이해름 장슬겸 전은혜 정서희
최재희 최지혜 최혜연

This project has been assis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s Major Festivals Initiative, managed by the Australia Council, its arts funding and advisory body, in association with the Confederation of Australian International Arts Festivals Inc., commissioned by, Adelaide Festival, Sydney Festival, Darwin Festival and GWB Entertainment Pty Ltd.

A I C I C
초이스
ACC 예술극장 극장1

The Pulse 서커스
더 펄스
2025.5.2.-4.

서커스

더 펄스

The Pulse

현대 서커스의 경계를 넓히고 있는
Gravity & Other Myths의 내한공연

공연기간 5. 2.(금) 19:30, 5. 3.(토), 4.(일) 15: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창작발레

더 라인 오브 옵세션_몬드리안

The Line of Obsession_Mondrian

정형일 발레크리에이티브의 현대 발레 공연.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발레의 몸짓에
몬드리안이 추구한 선의 질서와 도형을
조합해 색채를 입힌다.

공연기간 7. 18.(금) 19:30, 7. 19.(토) 15: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5만원 / S석 3만원



The Line of Obsession_Mondrian
더 라인 오브 옵세션_몬드리안
정작발레
2025.7.18.-19.

Concerned Others
2025.6.26. - 29.
다원연극
컨선드 아더스



The Time of Chimeras
2025.8.24.
베르나르 베르베르 x 세종솔로이스츠
키메라의 시대



A C C F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 C C F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다원연극

컨선드 아더스

Concerned Others

스코틀랜드 극단

Tortoise in a Nutshell 신작,
약물 중독을 둘러싼
주변인의 목소리를 담은 공연

공연기간 6. 26.(목), 27.(금) 19:30
6. 28.(토), 29.(일) 15:00, 18: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14세 이상

티켓가격 2만원

베르베르 베르나르 x 세종솔로이스츠

키메라의 시대

The Time of Chimeras

신작 <키메라의 시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내레이션과
세종솔로이스츠의 연주가 함께하는 공연

공연기간 8. 24.(일) 15: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댄싱9, 스테이지 파이터
안무가 이루다의
블랙토무용단과
영화음악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

2025 ACC 브런치콘서트

5월 블랙토 댄스 콘서트

공연기간 5. 28.(수) 11: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사랑이 불멸의
클래식이 되는 순간,
클래식 작곡가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의
음악 이야기

2025 ACC 브런치콘서트

6월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불멸의 연인들'

공연기간 6. 25.(수) 11: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2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천선란 작가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2035년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과 로봇
그리고 동물 사이의
연대와 우정을 그린
창작가무극

2025 ACC 퍼니

천 개의 파랑

공연기간 5. 30.(금) 19:30, 5. 31.(토) 14:00, 19:0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7만원 / S석 5만원



도이치 그라모폰(DG) 선정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의
체임버 앙상블,
카메라타 RCO

2025 ACC 슈퍼클래식

카메라타 로열 콘서트헤바우

공연기간 7. 4.(금) 19:30
공연장소 예술극장 극장1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가격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뉴욕의 거장들

MASTERS OF NEW YORK :
THE GENERATION OF
ROTHKO, POLLOCK AND
KRASNER
From the Collection of The
Jewish Museum, New York

2025. 7. 18.
~ 9. 28.



NAVER **BOOKS** **리커빙크**

Jackson Pollock, Horizontal Composition, ca 1945,
Oil and enamel on canvas mounted on composition board, 23.6 x 29.5 cm
From the Pollock Museum, founded by Pollock and Krasner



가장자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www.acc.go.kr 1899-5566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 후원
VIBE whole

관공주 후원
CHARM

Co-organized
by The Jewish
Museum, New
York, and the
Foundation for
the Exhibition
of Photography
in Association
with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
Newest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ENA Partnership,
Seoul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 C F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Foundation